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잠깐 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낙심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세 번이나 말했다(1, 8, 16절). 그는 전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사도 바울과 다르지만, 우리도 어떤 환경여건에서도 낙심치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들은 다양할 것이다. 어떤 이는 몸이 약해서 낙심하고,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원수가 많아서 낙심한다. 또 어떤 이는 사는 목적을 몰라서, 또 어떤 이는 살 힘과 의욕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세상이 싫어서 낙심한다.

사도 바울이 낙심치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겉사람 즉 육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쇠하여진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그것을 모르며 40세 즈음까지도 그런 것 같으나, 나이가 들어 아마 40세가 지나면 간혹,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몸의 약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눈도 귀도 발목도 허리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혈압, 당뇨, 심장, 신장, 폐 등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바울같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겉사람이 더 빠르게 쇠하여질 것이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은 중생한 후에 자라간다고 본다. 에베소서 4:13, 15-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히브리서 6:1-2,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베드로전서 2:1-2, “모든 악독과 모든 궤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18,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에베소서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 계속해서 새롭게 됨을 말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자라고 강해진다. 이것이 성화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여질지라도 속사람은 도리어 새로워지고 강해진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했다

데, 그가 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은 천국을 가리켰다. 하나님과 천국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의 목표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즉 돈이나 권세나, 육신의 즐거움 등이며 건강과 병약함도 실상 거기에 속한다. 그것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들은 썩어질 양식과 같다. 요한복음 6:27에 보면, 주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15-17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목표인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은 성도들의 복된 부활과 영생도 그러하지만 그것들은 다 확실하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물론, 구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도우

신다.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거처할 곳도 주실 것이다. 잠언 3:7-8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치료, 건강]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자. 첫째로, 우리는 어떤 환경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 몸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국제정세가 어떠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자. 그것은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롬 6:13) 재림의 주 앞에서 흠과 점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벧후 3:14).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신 32:39).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시 39:6-7).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가정적, 사회적 평안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신다.